

C7007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E207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16.05.13
운용기간	2020.07.01 ~ 2020.09.30	손속기간	취항으로 별도의 손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목적은 글로벌 시장 내 채권을 대상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자본 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글로벌다이나믹 채권재간접형	자산 총액 (A)	2,916	3,244	11.26
	부채 총액 (B)	1	1	11.37
	순자산총액 (C=A-B)	2,915	3,243	11.26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2,655	2,924	10.13
	기준가격 (E=C/D×1000)	1,097.89	1,109.12	1.02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3분기 금융시장은 7, 8월 위험자산 강세 이후 9월 위험자산 약세로 전환되며 9월 초를 기점으로 하여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7, 8월의 위험자산 강세 흐름이 9월 약세 대비 더욱 강하게 나타나면서 채권 내 위험자산인 이머징, 회사채 등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반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국채는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각국 국경 봉쇄, 기업들의 생산 중단으로 위험자산 급락, 안전자산 강세를 보였던 2~3월과 달리 4월 이후부터 8월까지의 대체로 위험자산 강세 모멘텀이 이어졌습니다. 경제 여건 측면에서 3월 말 주요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실세로 6월말 이후 각국 정부에서 이동 통제 및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함에 따라 실물 및 심리 지표, 기업 실적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긴급 금리 인하, 대규모 양적 완화, 매입 자산에 대한 질적 완화까지 주요 중앙은행에서 연이어 이례적 수준의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더욱이 8월말 진행된 잭스홀 미팅에선 연방준비은행 파월 의장이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매우 오랜 기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매우 완화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재정정책 측면에선 EU 재정률 철폐, 공동회복기금 설립, 미국의 수차례 대규모 재정부양책 도입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지출정책이 발표되면서 경기 회복 지원을 강화한 것도 위험자산 선호 모멘텀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의 측면에선, 세계 여러 제약사에서 코로나 백신에 관한 긍정적인 뉴스를 연이어 발표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선 긴급승인을 통해 백신과 치료방법이 조기 도입되기도 하면서 극복 기대감을 높였

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 흐름에 따라 회사채와 이머징 채권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미국 국채 및 주요국 국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9월 들어서는 대형 이벤트는 부재한 가운데, 다소 위험자산에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지속되면서 시장흐름이 위험자산 회피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선 큰 변화가 없었으나 9월 ECB 통화정책회의가 기대 대비 다소 덜 완화적이라는 시장 반응이 있었습니다. 재정정책 측면에선 미국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추가 재정 부양책 도입 필요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고 실무적으로도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재정정책 측면의 시장 실망감도 커졌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시사, 대법관 조기 임명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갈등 심화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한달 간은 미국채 금리 소폭 강세, 신용물 스프레드 전반의 확대가 나타났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이전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방향성이 없이 제한적인 등락을 보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이 부각될 것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서 금리의 하방 압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할 계획입니다.

신용스프레드는 여러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회사채는 미국 국채금리가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캐리 수익 정도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안화 국채의 이자수입이 미국 회사채 대비 높고 위안화의 방향성이 강제로 움직인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회사채가 그다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은 이러한 매력도 감퇴를 반영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에선 자국 화폐로 표시된 국채의 발행 여력이 늘어나면서, 달러 표시 국채 조달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평가, 외환보유고 여력 등에 강제로 제한 받게 되었던 국가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유인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 펀더멘탈 악화가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약화된 펀더멘탈이 악화된 대외환경과 결합할 경우 이머징 국가들이 해당 위험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신용물 포지션도 방어적인 수준에서 시장 상황은 면밀히 살피며 대응할 계획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1.02	5.38	1.44	2.09

* 비교기준(벤치마크) : 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2.09	8.81	6.96	-

* 비교기준(벤치마크) : 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전기	0	0	0	129	0	0	0	0	0	-3	126
당기	0	0	0	29	0	0	0	0	0	-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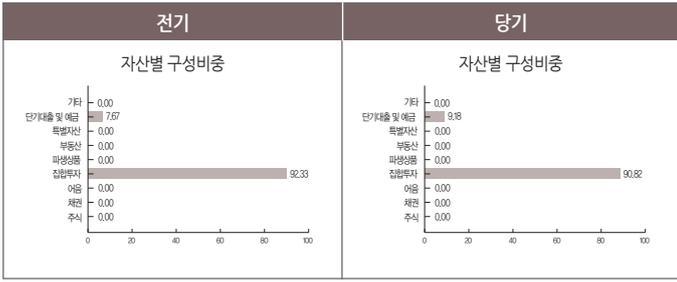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KRW (1.00)	0	0	0	2,946	0	0	0	0	298	0	3,244
	(0.00)	(0.00)	(0.00)	(90.82)	(0.00)	(0.00)	(0.00)	(0.00)	(9.18)	(0.00)	(100.00)
합계	0	0	0	2,946	0	0	0	0	298	0	3,244

※ () : 구성비중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강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 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합니다. -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약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 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 환헤지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0.09.30) 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20.07.01 ~ 20.09.30)	환헤지로 인한 손익 (20.07.01 ~ 20.09.30)
100	98.4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환헤지로 발생한 손익 사항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 하는 환헤지 손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환헤지 비용은 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수수료이며, 선도환거래의 경우 수수료가 계약 환율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1호(채권F)	90.82	6		
2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9.18	7		
3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 최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 증권 자1호(채권F)	채권형	2,901	2,946	대한민국	KRW	90.82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6-05-13	298	0.23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1	78	2,505,667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8	78	2,505,667			2119000109
김태현	과장	37	78	2,505,667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8	2,505,667			211900011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3	0.10	3	0.1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3	0.11	3	0.11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 · 중개수수료	0	0.00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영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 · 비용비율(A)	매매 · 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4484	0	0.4484
당기	0.4484	0	0.4484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우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사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